

제6장 경찰 행정

1. 경찰제도의 변천

1) 구한말 ·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구한말 이전에는 경찰기관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일반 행정기관에서 국가치안보장의 임무도 수행하였다. 그러던 것이 1835년 조선조 헌종 대에 이르러 경찰사무를 다른 일반행정과 구별하여 별도로 처리하기 시작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경찰제도를 가지게 된 것은 1894년 갑오경장 이후로 이때부터 경찰이란 명칭을 쓰게 되었다. 개화당이 집권하고 신행정부 관제가 실시되면서 종래의 경찰기관이었던 포도청을 폐지하고, 서울에 경찰청을 신설하여 내무아문 관할에 속하게 하는 한편 지방에는 경찰사무를 관찰사에 예속시켜 형사·사법권을 주어 재판과 형의 집행을 담당케 하였고 또한 군수와 같은 행정관도 판검사, 경찰 등의 직무를 병행하여 범죄수사 및 형사 집행을 담당케 하였다.

1905년 2월에는 한일간에 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인 경찰관 본부를 서울에 두고 각도에 지부, 군에 분견소 또는 분파소를 설치하여 경찰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1907년 10월 18일에는 칙령으로 경찰청관제와 지방관제가 제정 공포되어 지방인 도에는 경무부, 군에는 경찰서를 설치하였다. 이는 한일 양국의 경찰을 통합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치로서 같은 해 10월29일 통감 이등박문은 이완용과 함께 경찰사무 집행조치서를 성립시켜 한국경찰은 일본경찰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었다.

1910년 한일합방이 강행되자 일본총독부는 폐지되고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는 동시에 총독부 경찰관서는 조선총독부 경찰관서로 개칭되었고, 일제의 무단정치를 위한 경찰제도로 변천하였다. 따라서 일제초창기 경찰제도는 무단정치를 위한 경찰과 헌병의 통합제도로 이루어져 중앙경찰총장에 헌병사령관을, 각도의 경찰부장에 헌병대장을 임명하였다.

그 후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정세의 변천과 더불어 3·1독립운동을 전후하여 우리 민족의 일대 봉기에 직면한 일제는 소위 문화정치를 한다는 미명 아래 1919년

관계를 개정하여 지방경찰권을 도지사에게 예속시키고 헌병을 경찰집행권에서 제외하여 경찰사무를 경찰관서에 전담시키는 보통경찰제로 전환하였다. 중앙에는 경찰국, 도에는 경찰, 부 그리고 군에는 경찰서를 설치하여 경부로서 서장에 보하고 종래 한국인만으로 임명하던 순사보의 계급을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순사로 하는 등 경찰관리의 대우를 개선하였다.

2) 경무부시대

1945년 8월 15일 일본군국주의 패망과 함께 강압적 경찰권 행사도 중지부를 찍게 되었으며 같은 해 9월 9일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동시에 군정이 실시되었다. 이때 일시적으로 기존기구를 활용하여 치안을 확보하다가 같은 해 12월 21일에 미 군정청에 경찰국을 두고 지방에는 도지사 밑에 경찰부를 두었다가 12월 27일에 경찰조직에 관한 군정명령으로 도지사 산하에서 경찰을 분리하여 독립시켰고 1946년 1월 16일에는 종래의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무부로 승격시켜 당시 직제상 과는 국으로, 경찰서 산하의 경찰관주재소를 지서로 개칭하였다.

1946년 4월1일에는 행정기관의 개혁으로 도의 경찰부를 관할 경찰청으로 개칭하고 경찰서는 지방 위주의 관서명에서 구번호제로 개칭하여 충청남도 경찰부는 제3관할경찰청으로 하고 보령경찰서는 제8지구경찰서로 개칭하였다.

3) 치안국 · 치안본부시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군정하의 경찰은 국립경찰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 내무부장관 산하에 치안국을 설치하는 등 그 제도와 기구도 대폭 개혁하였다. 관할청은 폐지되고 다시 도지사 산하로 들어가 경찰국으로 개칭되었고, 각부의 경찰행정도 구서명칭을 군의 명칭으로 바꾸어 우리 지역은 보령경찰서로 되었다. 기구도 대폭 강화하여 도 경찰국은 그대로 두고, 각 경찰서에 경무계 · 보안계 · 경비계 · 수사계 · 사찰계 · 통신계 · 경리계를 두었다가 1960년 4·19혁명 이후 사찰계를 정보계로 바꾸었으나 분담사무는 같았다. 1970년에는 경찰관의 계급을 늘려 총경과 경감 사이에 경정을 두고 경사와 순경 사이에 경장을 두는 변혁이 있었고, 직제도 계를 과로 승격 개칭하였다.

1974년 12월 24일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하고 기구를 대폭 개편하였다.

4) 경찰청시대

1991년 8월 1일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칭하고 각 시·도의 경찰국을 시·도 지방경찰청으로 바꾸었으며 일선 경찰서의 보안계를 방법계로, 대공과를 보안과로 개칭하여 보안과 외근계가 방법과 방법계로, 보안과 보안계를 방법과 방법지도계로, 보안과 교통계가 경비과 교통계로 이관되었고, 경무소관 전경업무가 경비계로, 경비소관 통신업무가 경무과로 이관되었다. 1995년 지서와 파출소를 모두 파출소라고 통일하였고, 2003년 8월 20일에는 지구대를 설치하여 지역경찰제를 실시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보령경찰

1) 보령경찰서

(1) 연혁

보령에 경찰관서가 처음 들어선 것은 1906년 10월 1일 홍주분서 관할 보령분파소와 충청남도 경무서의 직할로 남포분파소, 오천분파소를 설치한 것이었다. 이들 분파소는 다음해인 1907년 6월 20일 홍산분파소가 홍산분서로 승격되면서 그 직할로 편입되었고 그 후 순사주재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1910년 5월 15일 충청남도 경찰부 산하 보령경찰서가 신설되면서 남포와 오천순사주재소를 편입하여 보령군, 남포군, 오천군 3개군을 관할하다가 1914년 3개군이 통합되어 1개의 군지역이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같은 해 10월 5일 한국인 초대 경찰서장이 부임하였고 이때 90명의 직원으로 치안을 확보하였으며, 1946년 1월 16일 각 지역의 주재소를 지서로 바꾸었다. 1946년 4월 1일 경찰서의 이름을 제8지구경찰서로 바꾸고 4월 10일 신후출장소를 신설하였으며 1947년 3월 10일 원산도지서를 신설하였다. 1949년 2월 23일 보령경찰서로 이름을 바꾸고 같은 해 11월 15일 미산면에 평라지서를 신설하였다가 1954년 8월 25일 원산도지서와 평라지서를 폐지하였다.

1956년 8월 25일에는 대천리에 직할파출소를 신설하였다가 1958년 3월 20일 대천파출소로 바꾸었다. 1966년 5월 24일 원산도출장소, 31일에는 주교출장소를 신설하였고 경찰서 경비과에 방위계를 신설하였다. 1971년 5월 1일 원산도출장소를 지서로 승격시키고, 1975년 10월 27일 신후출장소를 파출소로, 주교출장소를 지서로 승격시켰으며 같은 해 11월 21일 성주파견소를 설치했다. 1986년 2월 27일 보령경찰서를 대천경찰서로

바꾸고 같은 해 8월 1일 대공과를 신설하였다. 1989년 1월 27일 어항과건소, 5월 8일 육도 및 허육도의 대공초소를 낙도출장소로 승격시켰다.

1995년 1월 27일 보령경찰서로 이름을 바꾸고 각 지서를 파출소로 이름 변경하였으며 1998년 7월 1일 보안과를 폐지하고 정보과 보안계를 신설하였다.

2003년 8월 20일 관할지역을 3개의 지구대로 나누어 대천·동대·청라파출소를 중부 지구대로, 신희·남포·원산도파출소를 서부지구대로, 웅천·주산·미산파출소를 남부 지구대로, 주교·주포·청소·오천·천북파출소를 북부지구대로 통합하여 지역경찰제를 실시하고 구 파출소는 치안센터라고 하여 경찰관 1명씩을 상근시켜 현지 민원업무를 보도록 하였다. 2004년 7월 1일 중부지구대를 대천지구대로, 서부지구대를 해수욕장 지구대로, 남부지구대를 웅천지구대로, 북부지구대를 주포지구대로 명칭 변경하였고, 같은 해 4월 24일 미산파출소를, 2006년 11월 10일에는 천북파출소를 신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04년 3월 26일 충남 102호 행정선(전장 21.2미터. 폭 4.2미터. 최대속력 25노트)을 취항하였고, 같은 해 7월 27일 신희동 2240-2번지 내에 163평 규모의 행정선 도서지원 센터를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청사

청사는 보령시 대천동 171번지(대천로 53)에 있으며 처음에는 목조건물이었으나 1956년 6월 30일 163.9평의 단층 석축시멘트 건물로 개축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1985년 12월 31일 1015.6평의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개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보령경찰서

(3) 기구 및 직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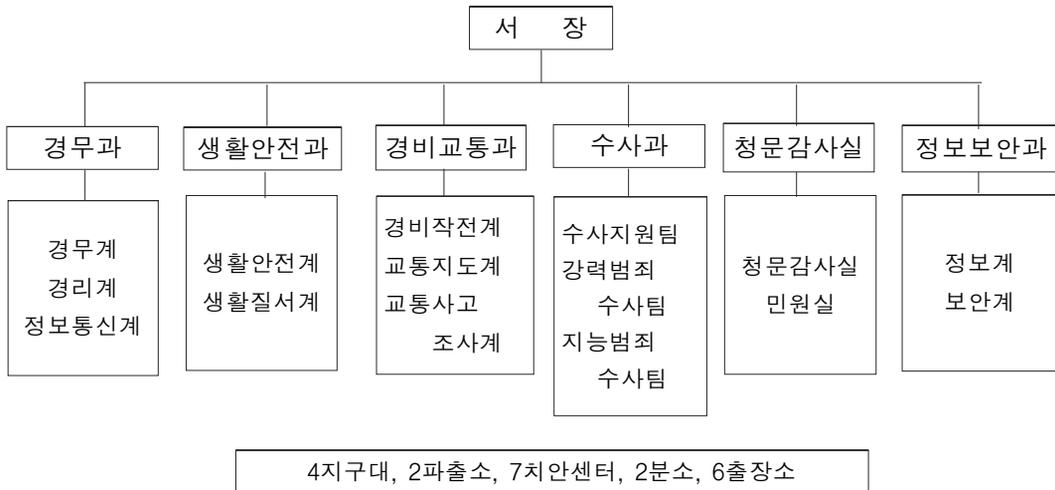
경찰서의 기구는 처음에는 서장 밑에 경무계·보안계·경비계·수사계·사찰계·통신계·경리계를 두고 계주임제를 시행하다가 1960년 사찰계를 정보계로 명칭 변경한 후 1968년 계를 과로 승격, 5개과 13계로 개편하고 1970년 장비계를 경비계로 통합하였다. 현재는 다음 기구표와 같이 5과 1실을 두고 과에 과장, 계에 계장 및 팀장을 두고 있다. 한편 직제는 서장을 경정으로 보직하다가 1969년부터 총경으로 보하여 경찰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하고 지구대·파출소를 지휘하며 생활안전과장을 경정, 각 과장을 경감으로 보하고, 각 계장 및 팀장은 경위로 보하고 있으며, 지구대장에 경감, 파출소장에 경위,

치안센터장에 경위, 분소장은 경사 내지 경장으로 보하고 있다.

경찰계급 체계표

연 도 별	계 급 체 계
1946. 1.16	경무부차장, 총경, 감찰관, 경감, 경위, 경사, 순경
1948. 9. 3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 경사, 순경
1970년 이후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보령경찰서의 기구표



(4) 경찰서 각과별 분장사무

과 명	과장직급	분 장 사 무
경무과	경 감	경찰인사, 교육 및 훈련, 통신에 관한 사무. 행정선 및 수련원운영
생활안전과	경 정	외근방법활동, 즉심업무, 총포화약류사무, 풍속에 관한 업무
경비교통과	경 감	경비업무, 작전업무, 전경관리. 교통지도 및 단속·조사
수사과	"	형사 민원사건 및 각종 범죄의 예방, 단속, 수사에 관한 업무
정보보안과	"	일반사내외 정보에 관한 업무, 보안정보활동 및 외사업무
청문감사실	"	감찰업무 및 민원업무처리

(5) 역대 경찰서장 명단

대수	직급	성명	재 직 기 간	시도	대수	직급	성명	재 직 기 간	시도
1	경위	정운섭	45. 9.15~45.11.15	충남	30	총경	문휘동	74. 2.27~74.10.18	"
2	경감	심재순	45.11.15~46. 1. 5	"	31	"	이영우	74.10.18~76. 4.10	"
3	"	권영찬	46. 1. 5~46. 8.15	"	32	"	유두성	76. 4.10~76. 6.24	"
4	"	이의춘	46. 8.15~46.10.14	경북	33	경정	김영근	76. 6.24~76.10.30	"
5	"	김종대	46.10.19~47. 3.31	충남	34	총경	최건석	76.10.30~79. 2.20	"
6	"	고래헌	47. 3.31~47. 8. 5	"	35	"	윤형원	79. 2.20~80. 7.21	서울
7	"	이상울	47. 8. 5~47.12.12	"	36	"	최광의	80. 7.21~81.11.16	충남
8	"	김군중	47.12.12~49. 8.16	"	37	"	오창열	81.11.26~83.12.12	성남
9	"	이세환	49. 8.16~49. 9.16	"	38	"	구자동	83.12.12~86. 1.28	충남
10	"	김선호	49. 9.16~51. 2. 6	충남	39	"	장석조	86. 1.28~88.2. 3	"
11	"	김재성	51. 2. 8~52. 3.19	"	40	"	최용규	88. 2. 3~89. 9. 3	"
12	"	윤두섭	52. 3.19~53. 9.30	"	41	"	황학수	89. 9. 4~91. 8.13	"
13	"	경태호	53. 9.30~55. 8.23	충북	42	"	이병우	91. 8.14~93. 3.25	경남
14	"	신필우	55. 8.23~57. 3.17	충남	43	"	구본경	93. 3.26~94. 6. 2	충남
15	"	김영철	57. 3.18~59. 5. 5	"	44	"	이춘성	94. 6. 3~95. 7.11	"
16	"	이선배	59. 5. 5~60. 5.11	"	45	"	박완규	95. 7.11~97. 1.10	"
17	"	김상희	60. 5.11~61. 6. 8	"	46	"	김광성	97. 1.11~97. 7.24	충북
18	"	금영은	61. 6. 8~61. 6.23	"	47	"	김영목	97. 4.24~98. 3.24	충남
19	"	김정국	61. 6.23~61. 7.17	"	48	"	김시환	98. 3.24~98. 7. 1	"
20	"	최윤국	61. 7.17~62. 3. 1	"	49	"	이환규	98. 7. 1~00. 1. 4	"
21	"	박재순	62. 3.14~63. 6. 6	"	50	"	서정권	00. 1. 4~01. 7. 2	"
22	"	박병찬	63. 6. 6~64. 1.21	"	51	"	장세원	01. 7. 2~02. 7.15	전남
23	"	이철래	64. 1.21~65. 5.21	"	52	"	최종혁	02. 7.15~03. 7.15	충남
24	"	황두식	65. 5.21~65.11.12	"	53	"	안억진	03. 7.16~04. 7. 9	"
25	"	전병관	65.11.12~67.10. 7	"	54	"	조원구	04. 7. 9~05. 7.12	"
26	"	박병찬	67.10. 7~69. 1.15	"	55	"	한상익	05. 7.13~06. 7.13	"
27	총경	노일래	69. 1.15~70. 6.22	"	56	"	양재천	06. 7.14~07. 7. 4	"
28	"	홍세기	70. 6.22~71. 8.18	"	57	"	김양제	07. 7.4~08. 7.14	"
29	경정	최종열	71. 8.18~74. 2.27	"	58	"	김후광	08. 7.15~현재	전남

(6) 주요 업무조치 상황

① 연도별 유형별 범죄취급 현황

연도별	합 계			형 법 범			특 별 범 법		
	발생건수	검거건수	비율	발생건수	검거건수	비율	발생건수	검거건수	비율
1962	938	875	93	632	570	90	306	305	99.7
1965	889	889	100	622	662	100	227	227	100
1970	2119	2016	95	711	628	88	1408	1388	99
1975	1259	1029	82	996	885	89	263	263	100
1980	2674	2557	96	1903	1807	95	771	750	97
1981	2819	2507	89	1541	1329	86	1278	1178	92
1982	4295	3939	92	3888	3656	94	407	283	70
1983	3244	2943	91	2427	2316	95	817	627	77
1984	2853	2440	94	1971	1935	98	612	505	83
1985	2779	2421	87	2072	1945	94	707	476	67
1986	2697	2378	88	2078	1914	92	619	464	75
1987	2601	2401	92	1894	1748	92	707	653	92
1988	2539	2343	92	1741	1615	92	798	728	92
1989	4121	3900	94	3110	2964	95	1011	939	92
1990	2772	2655	95	2161	2019	93	611	636	104
1991	2927	2590	88	1709	1575	92	1218	1015	83
2004	7457	5921	79	2301	1670	72	5156	4251	82
2005	6514	5190	79	1780	1255	70	4734	3935	83
2006	5050	3971	78	1739	1281	73	3311	2690	81
2007	4934	3521	71	2392	1386	57	2542	2135	84

② 교통사고 발생 상황

연도별	발생건수	인명피해		비 고	연도별	발생건수	인명피해		비 고
		사망	부상				사망	부상	
1971	78	5	62		1989	617	51	759	
1972	69	11	109		1990	697	60	865	
1973	305	47	446		1991	708	56	814	
1974	21	21	115		1993	870	46	1145	
1975	88	20	128		1994	1005	43	1184	
1976	122	14	172		1995	978	64	1279	
1977	178	15	220		1996	1035	82	1473	
1978	193	26	194		1997	1009	69	1447	
1979	175	20	246		1998	876	53	1291	
1980	201	17	219		1999	877	47	1227	

1981	224	29	265		2000	857	39	1219	
1982	274	31	428		2001	685	43	1109	
1983	355	37	383		2002	574	35	829	
1984	347	33	343		2003	643	32	969	
1985	347	32	383		2004	544	36	759	
1986	410	29	403		2005	476	22	730	
1987	623	35	635		2006	520	32	810	
1988	541	46	695		2007	552	18	966	

2) 경찰지구대

(1) 대천지구대

① 창설 및 관할지역

2003년 8월 20일 중부지구대로 창설, 구 대천파출소와 동대파출소, 청라파출소가 관할하던 대천1동, 2동, 3동, 4동 지역과 청라면 지역을 관할하다가 2004년 3월 26일 대천지구대로 이름을 바꾸었고, 2008년 10월 29일 관할구역조정에 따라 대천치안센터와 대천1·2동, 동대동 일부를 주포지구대에 넘겨주고 남포면 창동리와 내항동, 남곡동, 보령시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해수욕장지구대에서 넘겨받아 대천3·4동, 청라면과 함께 관리하고 있다. 청사는 보령시 대청로 101(동대동 1160번지) 옛 동대파출소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② 지구대장

대수	직급	성명	재직기간	대수	직급	성명	재직기간
1	경감	박정호	2004. 2. 3~2004.10. 2	3	경감	정호경	2006.3.15~2007.2.5
2	경감	이병익	2004.10. 2~2006. 3.15	4	경감	손종렬	2007.2.5~현재

③ 관할 치안센터

센 터 명	소 재 지	업 무
청라치안센터	보령시 청라면 나원리 928-2	현주민원접수

④ 편입된 파출소

파출소명	연혁 및 편입상황
동대파출소	1977년 10월 1일 설치되어 대천 3-5동을 관할하였고 같은 해 8월 5일 동대동 983-35번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2000년 11월 22일 동대동 1160번지에 다시 신축하였고 2003년 8월 20일 지구대창설로 중부지구대에 편입되면서 건물도 지구대 청사로 전환되었다.

청라파출소	1910년 주재소설치, 1946년 1월 16일 청라지서로 개칭, 1995년 1월 27일 파출소로 바뀌었다가 2003년 8월 20일 지구대창설로 중부지구대에 편입되었다. 건물(라원리928-2)은 청라치안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	--

(2) 해수욕장지구대

① 창설 및 관할지역

2003년 8월 20일 서부지구대로 창설되어 구 신후파출소와 남포파출소, 원산도파출소가 관할하던 대천5동지역과 남포면지역, 섬지역을 관할하다가 2004년 3월 26일 해수욕장지구대로 이름을 바꾸었고, 2008년 10월 29일 관할구역조정에 따라 남포면 창동리와 남곡동, 내항동, 보령시 쓰레기위생매립장을 대천지구대에 넘겨주었다. 청사는 보령시 해변중앙로 70(신후동 1809번지)의 옛 신후파출소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② 지구대장

대수	직급	성명	재직기간	대수	직급	성명	재직기간
1	경감	김봉경	2004. 2.13~2006. 3.15	3	경감	안재진	2007. 2. 5~2008. 3.25
2	경감	손종렬	2006. 3.15~2007. 2. 5	4	경감	김영일	2008.3.25~현재

③ 관할 치안센터

센터명	소재지	업무
남포치안센터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 362번지	현지민원접수
원산도치안센터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416-2	현지민원접수

④ 편입된 파출소

파출소명	연혁 및 편입상황
신후파출소	1943년 10월 10일 설치하였고 1945년 해방과 동시에 폐지하였으나 1946년 4월 10일 당시 대천읍 신후리 950-1번지에 출장소를 설치하였고 1965년 7월 15일 신후리 264번지로 이전하였다가 1968년 7월 1일 신후리 113-5번지로 이전, 1975년 10월 27일 파출소로 승격하였다. 1986년 신후동 1127번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신후동 1809번지에 다시 신축하였으며, 2003년 8월 20일 지구대 창설로 서부지구대에 편입하면서 건물도 서부지구대에서 사용하였다.
남포파출소	1906년 남포분파소 설치 후 1907년 홍산분소 남포주재소로 바뀌고 1910년 5월 15일 보령경찰서 소속으로 되었으며 1946년 1월 16일 지서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95년 파출소로 바뀌었으나 2003년 8월 20일 지구대창설에 따라 중부지구대에 편입되었다. 건물은 남포치안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원산도파출소	1947년 3월 10일 설치하였다가 1954년 8월 25일 폐지하였으며 1966년 5월 24일 출장소를 설치하였다가 1971년 5월 1일 지서로 승격하였고 1995년 1월 1일 파출소로 바뀌었다가 2003년 8월 20일 지구대 창설에 따라 서부지구대에 편입되었다. 건물은 원산도치안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3) 응천지구대

① 창설 및 관할지역

2003년 8월 20일 남부지구대로 창설하여 구 응천파출소, 주산파출소, 미산파출소가 관할하던 응천읍, 주산면, 미산면 지역을 관할하며 2004년 3월 26일 응천지구대로 이름을 바꾸었고, 2006년 4월 24일 미산파출소의 설치로 응천읍과 주산면지역만 관할한다. 청사는 옛 응천파출소 건물을 사용하다가 2005년 11월 4일 응천읍 대창리 727-10번지에 청사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② 지구대장

대수	직급	성 명	재직기간	대수	직급	성 명	재직기간
1	경감	김종범	04.2.13~04.4.28	4	경감	윤병소	05.6.4~07.7.2
2	"	강명희	04.4.28~04.6.4	5	"	고석환	07.7.2~현재
3	"	전병건	04.6.4~05.7.22				

③ 관할치안센터

센터명	소 재 지	업 무
주산치안센터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568-6번지	현주민원접수

④ 편입된 파출소

파출소명	연혁 및 편입 상황
응천파출소	1908년 대천리에 주재소 설치 후 1946년 1월 16일 지서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같은 해 8월 10일 대창리로 이전하였고 1995년 파출소로 바뀌었으나 2003년 8월 20일 지구대창설에 따라 남부지구대에 편입되었다. 건물은 남부지구대에서 사용하였으나 2005년 지구대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매각하였다.
주산파출소	1912년 헌병분재소 설치 후 1918년 간치주재소로 바뀌고 1946년 1월 16일 지서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95년 파출소로 바뀌었으나 2003년 8월 20일 지구대창설에 따라 남부지구대에 편입되고 건물은 주산치안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4) 주포지구대

① 창설 및 관할지역

2003년 8월 20일 북부지구대로 창설하여 구 주교파출소, 주포파출소, 청소파출소, 오천파출소, 천북파출소가 관할하던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지역을 관할하였으며 2004년 3월 26일 주포지구대로 이름을 바꾸었다. 2006년 11월 10일 천북파출소의 설치에 따라 천북, 오천지역을 관할에서 제외하였으며 2008년 10월 29일 관할구역조정에

따라 대천치안센터와 대천동, 동대동일부를 대천지구대에서 넘겨받아 함께 관리한다. 청사는 옛 주포파출소 건물을 사용하다가 2005년 11월 29일 주포면 보령리 255번지에 청사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② 지구대장

대수	직급	이름	재직기간	대수	직급	이름	재직기간
1	경감	이병익	2004. 2.13~2004.10. 2	4	경감	정호경	2007.2.5~2008.3.5
2	경감	강명희	2004.10. 2~2005. 2.15	5	경감	윤종덕	2008.3.5~현재
3	경감	박연호	2005.2.15~2007.2.5				

③ 관할치안센터

센터명	소재지	업무
대천치안센터	보령시 번영로48(대천동344-78)	현지민원접수
주교치안센터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216-11번지	현지민원접수
청소치안센터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474-1	현지민원접수

④ 편입된 파출소

파출소명	연혁 및 편입 상황
대천파출소	1956년 8월 25일 대천직할파출소로 당시 대천면 대천리 198-5번지에 설치하였고 1958년 3월 20일 대천파출소로 바뀌어 대천리 327번지에 가청사로 이전하였다가 1963년 10월 대천읍 대천리 344-4번지에 건물을 신축 이전하였으며 1977년 10월 1일 관할구역변경(동부파출소 신설로 대천1,2동만 관할)하였고 2003년 8월 20일 지구대 창설로 중부지구대에 편입되었으나 2008년 10월 29일 관할구역조정에 따라 주포지구대소속이 되었다. 건물은 대천치안센터로 사용한다.
주교파출소	1966년 5월 31일 출장소 설치하였다가 1975년 10월 27일 지서로 승격하였고 1995년 파출소로 바뀌었으나 2003년 8월 20일 지구대 창설에 따라 북부지구대에 편입되었다. 건물은 주교치안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주포파출소	1945년 10월 21일 주재소 설치 후 1946년 1월 16일 지서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95년 파출소로 바뀌었으나 2003년 8월 20일 지구대 창설에 따라 북부지구대에 편입되었다. 건물은 북부지구대에서 사용하고 있다..
청소파출소	1910년 정척주재소 설치한 후 1914년 청소주재소로 개칭하고 1946년 1월 16일 지서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95년 파출소로 바뀌었으나 2003년 8월 20일 지구대 창설에 따라 북부지구대에 편입되었다. 건물은 청소치안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3) 파출소

(1) 천북파출소

1921년 1월 1일 주재소 설치 후 1946년 1월 16일 지서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95년

파출소로 바뀌었으나 2003년 8월 20일 지구대 창설에 따라 치안분소가 되었다가 2006년 1월 3일 치안센터로 바뀌고 이를 다시 같은 해 11월 10일 파출소로 하여 천북과 오천 지역을 관할한다. 건물은 1989년 11월 18일 천북면 하만리 147번지에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① 지서장 및 파출소장 명단(1992년 11월 이후)

대수	직급	성명	재직기간	대수	직급	성명	재직기간
1	경사	권영래	92.11.26~93.10.18	7	경사	신길한	98. 4.13~99.11.16
2	"	손일용	93.10.18~94.12.1	8	"	이춘우	99.11.16~01. 8.16
3	경위	이창래	94.12. 1~95. 4. 4	9	"	강노영	01. 8.16~03. 4.19
4	경사	한기천	95. 4. 4~96. 3. 9	10	"	이남구	03. 4.19~04.10.14
5	"	김세동	96. 3.9~96.11.30	11	경위	전경태	06.11.10~07.12.14
6	"	임범순	96.11.30~98.4.13	12	"	신길한	07.12.14~현재

② 관할치안센터

센터명	소재지	업무
오천치안센터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현지 민원 접수

③ 편입된 파출소

파출소명	연혁 및 편입 상황
오천파출소	1906년 10월 1일 충남경무서 오천분파소를 설치하였고 1907년 6월 20일 홍산분서 오천주재소로 변경되고 1910년 5월 15일 보령경찰서 신설로 그 소속 주재소로 되었다가 1946년 1월 16일 지서로 바뀌었고 1995년 파출소로 개칭하였으나 2003년 8월 20일 지구대 창설에 따라 북부지구대에 편입되었으나 2006년 11월 10일 천북파출소 관할이 되었다. 건물은 오천치안센터에서 사용한다.

(2) 미산파출소

1917년 1월 1일 도화담에 주재소 설치 후 1945년 10월 21일 미산지서로 개칭하였고, 1947년 11월 29일 평라출장소를 설치하였다가 1955년 12월 30일 미산지서에 흡수하였으며 1965년 4월 1일 성주과전소 설치하였다가 2000년 6월 1일 미산지서로 통합하였다. 1995년 1월 1일 파출소로 바뀌었으며 2003년 8월 20일 지구대 창설과 함께 치안센터가 되었다가 2006년 4월 24일 다시 파출소로 하였다. 건물은 미산면 도화담리 127번지에 1991년 12월 3일 개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서장 및 파출소장 명단(1992년 5월 이후)

대수	직급	성명	재직기간	대수	직급	성명	재직기간
1	경사	윤영기	92.5.13~93.5.20	8	경사	강락현	99. 6.16~99.6.26
2	"	최성수	93.5.20~94.12.1	9	"	김하중	99. 6.26~00.2.9
3	"	이기조	94.12.1~96.5.20	10	경위	김광호	00. 2.9~01.8.16
4	"	신현준	96.5.20~98.4.14	11	"	최총순	01.8.16~03.4.19
5	경위	김창현	98.4.14~98.10.14	12	"	김영건	03.4.19~03.8.19
6	"	전경태	98.10.14~99.2.26	13	"	이춘우	06.4.24~07.12.14
7	"	오인엽	99.2.26~99.6.16	14	"	신희균	07.12.14~현재

4) 분소 · 초소

분·초소명	소재지	업무
장고도분소	보령시 오천면 삼시도리 829번지(장고도)	선박입출항관리, 민원
원산도분소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416-2번지	" "
외연도초소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97-2번지	" "
녹도초소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191번지	" "
호도초소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522-1번지(호도)	" "
삼시도초소	보령시 오천면 삼시도리 4-1번지	" "
고대도초소	보령시 오천면 삼시도리 907번지(고대도)	" "
효자도초소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349-1번지	" "

5) 협력 단체

(1) 경찰행정발전위원회

경찰행정발전위원회는 경찰청 예규 232호(1999.12.27)에의거 행정발전위원회 운영규칙이 제정되고 2001년 6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경찰서장이 위원을 위촉한다. 조직 당시에는 23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32명으로 운영하면서 경찰행정발전에 협조한다. 위원장은 이종승이 맡고 있다.

경찰행정발전위원회 현황

단위:명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분과위(분과위원장 각 1명 포함)		
			행정분과위원회	청문분과위원회	선도분과위원회
1	3	1	9	9	9

(2) 전의경어머니회

단위: 명

고 문	회 장	부회장	총 무	감 사	회 원
1	1	3	1	1	17

(3) 보안협력위원회

단위: 명

계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	감 사	고 문	위 원
30	1	4	2	1	4	18

(4) 지구대 및 파출소 협력단체

단위: 개

구 분	계	생활안전협의회	남자자율방법대	여자자율방법대
계	18	6	6	6
대천지구대	3	1	1	1
해수욕장지구대	3	1	1	1
웅천지구대	3	1	1	1
주포지구대	3	1	1	1
천북파출소	3	1	1	1
미산파출소	3	1	1	1

3. 주요 사건 사고

1) 간첩 침투 사건

(1) 지리적 여건

우리 보령 지역은 해안과 육지를 연결하는 여러 유리한 조건으로 인하여 간첩침투가 잦은 곳이었다. 120여 km에 달하는 리아스식 해안에 조석간만 차이가 많으며, 유인 도서 13개와 무인 도서 58개 등 총 71개의 도서가 분포되어 있어 공해에서 내륙까지 항상 선박이 떠 있는 해상 여건과, 장항~천안 간 21번 국도, 대천항~경북 울산 간 36번 국도,

대전~부여 간 40번 국도, 웅천 무창포~부여 간 606번 지방도등 해안에서 내륙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많이 발달되었고, 장항~천안 간에 장항선 철길이 있으며, 해안까지 인접된 차령산맥의 지맥(支脈)들은 해상으로 침투한 간첩의 내륙 잠입이 아주 쉬운 여건인 곳이다.

(2) 간첩 침투 현황

- ① 기 간 : 1952~1980 (28년 간)
- ② 횡수 및 인원 : 43회 76명
- ③ 연도별 침투 횡수 및 인원

총계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2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7	1978	1980
43회	1	3	1	7	1	8	2	1	1	2	2	3	1	4	2	1	1	1	1
76명	1	2	1	7	1	8	3	1	1	2	3	7	3	13	5	3	2	3	10

④ 지역별 침투 횡수

총계	웅천	남포	대전	주교	청소	천북	오천	원산도
76	9	5	13	8	2	3	6	20

⑤ 검거 및 도주 현황

총계	검거(경찰)			검거(군)	도주
	소계	보령서	기타서		
76	38	10	28	19	19

(3) 최근 1977~1980년의 간첩 검거 작전 사례

① 1977년 8월 22일 오천면 영보리 가송구지 침투 사건

1977년 8월 22일 오천면 영보리 가송구지 해안으로 침투한 간첩 김완동 외 1명은 이 지역의 취약점을 이용해 침투하였다. 이 지역은 당시 방위병 단독 근무 초소의 인근 지역이었다. 당시 비정규전 간첩 작전 책임이 해안 지역은 군에서 담당하고, 내륙 지역은 경찰이 담당하도록 대통령 훈령에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보령경찰서 관내 임해 지역인 천북, 청소, 오천, 주교, 대전, 신후, 남포, 웅천, 주산 등 9개 읍면의 해안에는 군에서 해안

감시 초소를 운영하였으며, 군 초소가 설치되지 않은 해안에는 방위병 단독 초소가 설치되어 방위병으로 경계 보조 근무토록 하였다.

경찰은 선박 출입항 포구에 어선 신고소를 설치하여 출입항 선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면서 해상 조업 안전 규칙과 먼바다에 출어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북방한계선의 월선 조업 금지 등을 교양시켜 출항시키는 등, 군과 협동하여 해상으로 침투하는 간첩의 조기 발견 검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김완동 외 1명의 간첩들이 침투한 지역은 군부대 경계 초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방위병 단독 초소와도 500~600m 거리에 있는 해안 오지 지역으로 인적이 드문 곳이다. 당시 가송구지의 방위병 초소에는 3명의 방위병이 격일 근무하는 곳으로 하루는 2명이, 다음날에는 1명이 야간 경계 근무를 하였다.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해안으로 침투하는 간첩의 조기 발견·검거는 커녕 밤마다 초소를 지키는 근무가 전부가 되다시피 하였다. 간첩 김완동 등은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 침투한 것으로 판단된다.

간첩 김완동 일당이 침투할 당시 보령경찰서 직원들은 도서 수색 훈련 중이었다. 당시 보령경찰서 최건석 서장으로부터 무전으로 귀서 명령을 받고 훈련 수행 중이던 경찰 경비정으로 귀서해 보니 인접 군인 청양군 적곡면(현재 장평면) 미당리 새터 마을에 간첩 김완동이 연고자를 접선키 위해 나타났다가 주민들에게 발각되어 도주했다는 정보였다.

보령경찰서 직원들은 청양 군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진입로에 대한 검문 검색을 실시함과 동시에 주간에는 전 직원이 동원된 예비군과 합동으로 산악 수색을 실시하였다. 경찰서 장도 관사에서 준비한 점심 도시락을 지참하고 산악 수색을 지휘하였다. 야간에는 산악 수색이 불가능하므로 경찰이 예비군과 합동으로 도주 예상로에 대한 차단목 검문소를 설치하고 경계 근무를 하였다.

이때 추위를 못 참고 인근 농가의 벼짚을 가져다 불을 피우는 예비군도 있었는데 후일 도주한 간첩들의 일기장에 의하면 불을 피운 것이 간첩들에게 예비군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간첩들이 도망가는 데 길 안내 역할이 되었다고 기술된 바 있다.

당시 군에서는 해안 경계 초소에 전 병력을 집중 배치하고 검문 근무를 강화하는 한편 대천 어항에서 원산도 간 해상을 통한 야간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 대천 어항과 원산도 등에 정박하는 10톤 이상의 어선을 동원, 야간에는 어항에서 원산도 간에 해상 차단선을 설치하는 등 간첩 검거에 관군 간의 합동 경계를 실시하였다.

현재 해경에서 운영하는 해안 각 어선신고소에서 출항 선박에 대하여 교부되는 선박 식별 표지판도 이 당시 고안되어 제작한 것이다.

한편 김완동이 나타났던 청양군 적곡면(현 장평면) 미당리를 중심으로 청양 칠갑산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작전이 약 2개월 간 군·경·예비군·민간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감완동 일당들의 행적은 묘연하고 당시 칠갑산 일대를 무대로 뱀잡이를 하던 땅꾼 조 모씨가 같은 시기에 행방불명되어 김완동 일당이 조 모씨를 대동 월북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다.

김완동 일당에 대한 검거작전이 약 2개월간 계속되어 잠시 소강상태에 있었는데, 추석을 4~5일 앞둔 9월 하순경 오전 9시경에 아침 조회를 하려는 시간에 오천 지서장 박 모경위가 오천면 오포리 매미골 앞 야산에 수류탄과 라이터가 소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예비군 오천 중대원들이 산악 수색 중 발견하였다는 보고를 해왔다. 이에 경찰은 당시 해안 지역 작전을 담당하던 육군 〇〇연대 작전 참모 및 해안 대대장과 함께 현장에 도착해 보니 수류탄은 북한제 에프원 수류탄이고 라이터는 미국제 지프 라이타로 실끈으로 소나무 가지에 매달아 놓은 것을 수색 중이던 예비군들이 발견하였던 것이다.

이때부터 칠갑산 수색작전은 종료되고 보령군 오천면 오포리와 영보리 일대를 중심으로 도주로 탐지 수색작전이 개시되었다. 그리하여 이 지역에서 간첩들이 은거했던 비트 3개가 발견되었는데, 라이터와 수류탄이 발견된 비트에서는 김완동 일당이 도주하면서 식량이 떨어져 인근 콩밭에서 생콩을 따다가 까먹고, 무 밭에서 무를 뽑아다가 먹고 남은 시래기가 바짝 말라 있었으며, 먹다 남은 콩깍지에서 콩 싹이 5~7cm 자란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칠갑산에서 대대적인 수색작전이 실시되고 있을 때 김완동 일당은 오천면 오포리 야산 비트 속에서 북한으로 탈출하기 위해 귀환 선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때부터 오천면 오포리 매미골 마을에 작전 지휘 본부를 설치하고 또다시 본격적인 수색 활동이 시작되어 현지에서 추석을 보내면서 약 1주일간 계속하였다.

그러나 결국에는 김완동 일당은 처음 침투했던 오천면 영보리 가송구지 옆 속칭 진구지 산고랑에 육군 상사 계급장이 부착된 북한제 군모를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도주하였으므로 약 2개월 간 충남도 내 군·경·예비군·관계 기관 등이 수고한 보람도 없이 작전이 종료되었다.

② 1978년 11월 3일 천북면 사호리 무장 간첩 침투 사건

1978년 11월 5일 새벽에 홍성군 광천읍 소암리 말봉산에서 이 마을에 사는 어느 부인이 예리한 흉기로 난자 당하여 살해된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충남도 내에서 인삼 절도 사건이 발생되어 이 살인 사건도 인삼 절도범들이 인삼밭에서 인삼을 훔치다가

살해된 부인에게 발각되어 살인한 것으로 알고 살인 강도 사건으로 수배되었다. 당시 보령경찰서 최건석 서장이 본래 수사 전문가로서 인접 군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운전하는 직원과 함께 현장에 도착해 보니 예리한 흥기로 급소만 여러 군데 난자한 것을 보고 현지 경찰들과 살인 수법을 분석하면서 주변을 살피던 중 나뭇잎 등으로 묻어 놓은 3명 분의 간첩 장비가 발견되었다. 이 때부터 살인강도 사건이 무장 공비 침투 사건으로 전환되어 무장 공비 검거 수색 작전이 전개되었다.

당시 상황은 무장 공비들이 홍성군 광천읍 벽계리 뒷산인 지계산의 레이더 기지를 관측하고자 말봉산에 이르러 레이더 기지를 사진 촬영하던 중 부인에게 발각되어 살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훗날 발견된 이들의 침투일지에 의하면 이 무장 공비들은 보령군 천북면 사호리 앞 산인 203고지에 11월 3일 야간에 침투하여 이곳에 비트를 구축 야영하고, 11월 4일 야간에 행동을 개시하여 11월 5일 새벽에 광천 말봉산에 도착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레이더 기지 촬영 등) 부인을 살해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무장 공비를 검거하기 위해 오서산 일대를 중심으로 군·경·예비군 합동으로 수색 작전이 실시되었다. 보령 지역에서도 오서산과 내륙지로 연결되는 도로 등을 차단하고, 검문 검색이 주야간 실시되고 오서산 지역에 대한 무장 공비들의 통신 감청 장비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검거 작전이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공주에서 무장 공비가 출현한 흔적이 있어 내륙 지역에서도 무장 공비 검거 수색 작전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무장 공비들은 천안 광덕산을 거쳐 경기도 소사 지역을 지나 1978년 12월 5일 경기도 김포반도 해안에서 북한으로 도주하였다.

이 무장 공비들은 고도의 야간 침투·잠입·탈출 훈련을 받은 관계로 광천 오서산 지역에서 간첩 검거 수색 작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이미 공주 사곡을 통과하였으며 천안 지역에서는 농촌 들녘 짚단에 숨어있다가 논에서 일하고 귀가하는 농민을 살해하는 등 후방지역 민심을 교란시켰다.

이들은 김포반도로 탈출하면서 침투일지를 버리고 갔다. 침투일지에는 비트에서 첫 번째 야영한 장소와 내륙지로 잠입하면서 살인 행적 상황, 군·경·예비군 등의 수색 작전을 비트에 숨어서 관측한 내용, 야간에 도주로에 배치된 예비군들이 불을 피워서 그곳을 피해 도주한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김포 반도 탈출 때 버리고 간 것이 간첩 김완동 일당이 오천면 영보리 해안에 수류탄·라이처·모자를 버리고 간 것과 동일하였다.

③ 1980년 6월 20일 간첩 김광현 외 9명 해상 침투 미수 사건

이 사건은 1980년 6월 20일 오후 5시 30분 경 보령경찰서 오천면 월도 앞바다에서 흥합잡이를 하는 어선들이 오천 지서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 신고 내용은 1977년 8월에 간첩 김완동 일당이 침투했던 오천면 영보리 앞바다에 어선 한 척이 고기잡이는 않고 계속 바다에 떠 있는 것이 수상하다는 것이었다. 즉시 영보리 진구지에 설치되어 있는 군 경비 초소에 통보되어 군 초소에서 수상한 선박에 대하여 해안에 접안토록 수하한 바 군 초소에 사격을 가하면서 도주하는 것을 군 초소에서 일제 사격으로 공격하였다.

그러나 그 어선은 북한 무장 간첩선으로 고성능 엔진을 달고 해상 침투용으로 제조되어 검거치 못하고 원산도 방면으로 도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어항에 있던 해경 경비정이 출동하였으나 간첩선의 속력에 미치지 못하여 간첩선은 원산도 앞바다를 지나 삼시도와 장고도 사이를 거쳐 서해 공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해·공군의 합동작전으로 도주로를 차단하였다.

간첩선도 해가 저물어 더 이상 탈출하지 못하고 서산 관내 격렬비열도 근해에 숨어 있다가 6월 21일 새벽, 출동한 공군 전투기의 공격을 받고 선박은 침몰되고 9명이 사살되고, 간첩 김광현만 생포되었다. 김광현은 1967년 8월과 1968년 7월 등 두 번이나 오천면 영보리 가송구지 해안으로 침투하였고 1977년 8월에 김완동 외 1명이 침투한 지역으로 재침투를 노렸으나 좌절되었다.

그후 간첩선은 인양되어 간첩 침투장비는 전시장에 여러 차례 전시되었고 생포된 김광현은 침투 상황에 대한 순회 반공 강연에서 오천 앞바다에서 도주할 때 군 초소의 기관총 가격으로 10명 중 1명이 다리에 관통상을 입은 것을 증언한 바 있다.

2) 집단 시위 사건

(1) 보령화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 집단 시위

① 배경

현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는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 212번지 내에 1979년 12월에 1기당 50만 kW의 1·2호기가 착공되어 84년 9월에 준공되었다. 이어 1993년 6월 3·4호기 준공, 1994년 4월 5·6호기가 준공되고 2002년 8월에 1기당 15만 kW의 LNG 복합발전소 12기가 준공되어 1~6호기에서 300만 kW, 가스복합 12기에서 180만 kW의 전기가 생산되고, 7·8호기가 200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가동되어 인간의 문화생활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은 불만 사항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발전소가 위치한 주변 지역인 보령시 주교면, 오천면, 청소면, 천북면의 해안 지역은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온수 방출에 따른 바닷물 수온의 변화로 기존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무연탄 연료 연소에 따른 미세 분진이 비산되어 농작물의 성장 결실에 장애가 발생되고 기존의 어장 피해 보상이 주민들의 요구대로 100% 보상되지 않는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항상 잠재되어 있었다.

② 1차 집단 시위 발생

보령화력 발전기 1·2호기가 준공 단계인 1984년 6월 초, 때 이른 집중호우가 내려 오천면 오포3리에 일제 때 축조된 오포간척지 약 70여 정보의 논 가운데 제방 쪽 약 20여 정보가 침수되었는데,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던 오천면 오포리 주민 50여 명이 오전 7시 경 삽과 쇠스랑 등 농기구를 들고 보령화력 본관의 현관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하여 농지 침수가 보령화력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발전소장(3대 윤판식)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하였다.

신고를 받은 보령경찰서에서는 경찰서장(38대 구자동) 지휘로 경찰관 기동대와 비상소집된 일반 경찰관들을 보령화력 현장에 보내 대처하였다. 현장에서는 농민들이 발전소 현관에 연좌 농성 중이었고 발전소장은 2층 집무실에서 당황하여 주민들과 대화조차 못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서장이 주민들에게 피해 책임은 서로 협의해서 해결하거나 법으로 하라고 설득하고, 발전소장과 함께 주민들이 주장하는 침수지역을 가 보았다.

간척지에서 바다로 배수되는 수문 너비가 약 10m의 수문 4개가 있고 수문과 수문 사이에 석축으로 된 기둥이 3개가 있어 실제 배수되는 수문 너비는 6~7m밖에 안 되고 70여 정보의 논에서 수문으로 연결된 수로 폭은 약 50m 정도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집중 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농지 침수는 필연적인 것이어서, 보령화력 공사전에도 오천면 오포리 매미골과 여수해 앞 농지가 고질적인 침수지역이었다. 그런데도 이번의 침수가 보령화력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 농민들이 흥분하여 보령화력에 난입하여 막무가내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에 경찰서장이 보령군수(26대 김수진)에게 주민들의 수문 확장 공사 요구를 전달해 주고, 이후 수문확장을 했어도 보령화력 공사로 인해 배수가 안 될 경우 그때 보령화력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도록 종용하여 주민 농성이 종료되었다.

당시 보령화력에서는 북부회처리장(85만㎡) 공사를 하기 위해 오포 3리 간척지 제방과

수로폭이 하부 약 50m, 상부 약 100여 m의 간격이 두어졌기 때문에 보령화력 북부 회처리장 공사로 인하여 농지가 침수된 것은 아니었다. 농민들의 집단 농성 후 보령군에서 수문 2개 (약 9m)를 확장 신설하였다.

③ 2차 집단시위 발생

보령화력 1·2호기가 준공 가동되면서 온수 배출로 인한 바닷물 수온 상승으로 인접 해안에서 생산되던 해태 생산이 중단되고, 오천면 교성리·오포리·영보리 등은 동남풍이 불면 발전소 연돌에서 나오는 미세 연탄재로 인하여 농작물 결실이 안 되고, 흰 옷 빨래는 옥외에서 건조시키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었다.

특히 주교면 해안과 오천면, 청소면, 천북면의 해안에서 해태 어장을 하는 주민들은 해태 생산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피해 보상에 대한 불만이 컸다. 주민들에 의하면 서천·군장 지역의 어민 보상은 토지개발공사에서 100% 해 주었는데, 보령지역은 95% 보상하고 해태어업권 보상도 전남 남해안에서는 책당 140여 만 원인데 보령지역은 책당 60여 만 원으로 타 지역의 절반도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1988년 5월 초순 오전 9시 경부터 보령화력 가동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주교면 송학리·고정리·오포리 주민들은 송학초등학교 학생 등교를 거부하고, 초등학교들을 데리고 1가구 1명씩 집회에 참가하고, 오천면 오포리·영보리·교성리 주민들과 청소면 진죽리 송덕마을, 도미항 주민, 천북면에서 학성리 낙동리 주민 등 총 600여 명이 보령 화력 정문에 집결 연좌 농성하다가 발전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정문 울타리를 가운데 두고 발전소 청경 및 보령경찰서 기동대와 주민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때 청소 소영 어촌계 주민 4~5명이 갑자기 발전소 정문 울타리를 타고 넘어와 청원경찰에게 붙잡혔는데 이들을 청원경찰 막사로 끌고 들어가 폭행을 가하여 청소면 진죽리 한창초 외 2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부상 당한 피해자들을 경찰 호송차로 대천시내 병원으로 이송하고 양측이 팽팽하게 흥분되어 맞서고 있는 중에 보령화력 본부장(보령화력발전소 6대 보령화력본부 초대 김영문)과 주민 대표 간에 협의하고, 발전소에서 한국전력 본부에 보고하여 주민들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설득하여 시위 주민들을 각 어촌계장과 이장들이 귀가조치 하도록 하여 해산하기로 했다. 그런데 오천면 주민들은 마을에서 준비한 중식을 자동차로 운반하여 시위 현장에서 배식하려 하였다. 시위를 이제 막 어렵게 설득시켜 해산하는데 현장에서 중식을 하면 주민들이 다시 시위 농성에 들어갈 정황이 있어 경찰이 배식을 중지시켰더니 점심도 못 먹게 한다며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후 1988년 8월 초 주포어촌계(어촌계장 차재민, 보상대책위원장 이신복)를 주축으로 또다시 집단시위를 할 계획이 있다는 첩보가 있었다. 이에 경찰에서는 주포어촌계 사무실을 방문해 보니 어촌계원 10여 명이 모여 집회 계획을 하고 있었다. 지난 5월에는 600여 명이 참가하였는데 이번에는 1,000여 명을 동원시킨다고 협의하고 있었다. 경찰이 집단시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시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다. 이유는 지난 5월 집회 시에 보령화력 본부장이 한국전력본사에 요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약속을 하였는데 보령화력 측에서 아무 소식이 없어 보령화력 본부장을 면담하려고 보령화력에 가면 정문에서 청원 경찰이 본부장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본부장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방문해도 면담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시위해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경찰에서는 보령화력 본부장과 면담을 주선했지만 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설득하였다. 이에 그들도 주민 1,000여 명이 나오면 사실상 통제도 어렵고 지난번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본부장과 대화의 우선 희망하였다. 그리하여 경찰은 어촌계 사무실에서 보령군수(제30대 김학현)실에 전화하였다. 주민들이 보령화력본부장과 면담을 하지 못하여 시위해야겠다고 하니 군수가 보령화력본부장 면담을 주선했달라는 내용이었다. 군수가 즉석에서 보령화력 김영문 본부장에게 전화하여 1주일 후에 보령군청 회의실에서 면담하기로 약속되어서 시위는 무산되었다.

그후 보령군청 회의실에서 보령화력 본부장과 보상대책추진위원회 측이 대화를 가졌으나 보령화력 측에서 준비한 자료가 보상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보다 객관적이고 기술적이어서 큰 시비없이 대화는 끝났다. 그러나 어업권 보상이나 온·배수 피해, 분진 피해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한 상태였다..

④ 3차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 시위

1996년 8월에 착공하여 2002년 8월에 준공된 LNG 사용 복합 화력발전소가 있다. 이 복합화력 건설 당시에 주교면 송학리·고정리 주민들은 화력발전소 1~6호기 가동으로 어업권과 생태계 변화(수온 상승, 분진 공해) 등의 보상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소 부지에 또다시 복합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에 항의하며, 97년 4월 공사장 공터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놓고 공사 반대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이때도 88년 시위 때와 같이 주민들은 송학초등학교와 송도분교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집단 농성하였는데, 주로 고정리 송도 주민들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주먹밥을 먹으며 밤을 잤다.

보령화력 건설 당시 오천면 오포리에 북부회처리장을 조성하고, 주교면 고정리 송도를

오포리 발전소 부지와 연결하여 제방을 축조하여 남부회처리장(약 170만㎡)을 조성하였다. 복합화력 건설부지와 송도 해안을 연결하는 제방을 축조할 당시 송도와 고정리의 선박 어업을 하던 일부 주민들이 송도 해안에 정박시키던 갯벌 계류장이 당장 폐쇄되면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 북부회처리장이 만적될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제방 가운데 부분을 연육교식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 지역대책회의에서 보령화력측과 협의, 연육교식 제방을 조성하여 기존의 어선 소유자들은 연육교 밑으로 선박 출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서산 지역과 천라도 등 타지에서 간척 공사로 선박 보상을 해준 것을 이용, 연육교 공사 당시 10여 척이던 선박이 100척이 넘게 연육교 안쪽의 북부회처리장 예정지에 정박해 있었다. 그 중에는 다른 지역에서 보상 받은 폐어선까지 구입 야간에 운반하여 정박시키는 주민들도 있었다. 이들 선주들도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적극 반대 농성하였고 선박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이런 상황이어서 비닐하우스 안에서의 반대 농성 시위는 2일 만에 해산되었다.

(2) 충남 탄전 보령 지역 광산 근로자 집단 시위

1986년 4월 초에 신성산업(사장 신홍식) 성주지역 광산근로자(노조위원장 김하중)들이 체불된 노임을 해결해 달라고 성주지역에서 2일간 작업 거부 등 농성을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자 대천 시내에 있는 신성산업 본사에서 농성하기 위해 근로자 600여 명이 준공되지 않은 성주터널을 통과하여 이동하였다.

당시 성주 터널은 명천동과 성주리 간 관통 공사만 해 놓고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터널 바닥은 물이 고여 사람 통행이 허용되지 않았다. 광산근로자들은 무릎 위까지 고여 있는 물을 마다하지 않고 터널을 걸어서 통과하였다. 체불 노임이 해결되지 않아 본사로 진입하는데, 옷을 적시며 먼 길을 오다보니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신성산업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기물을 파괴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다. 이때 회사에서는 현금 준비가 되지 않았다. 당시 광산 근로자 노임은 대개 2~3개월 체불하였다가 설 명절과 추석명절에 당월분 포함 1개월 분이 함께 지급되다 보니 2~3개월 분은 항상 체불되었다.

신성산업을 비롯한 지역 탄광에서 일하는 광산근로자는 사갱은 3교대 근무로 갱당 100~200여 명, 수평갱은 갱당 20~30명씩이었다. 신성산업의 성주지역 사갱은 개화·떡방·백운·옥보 등에 근로자 700여 명, 성립사갱 200여 명, 외산지역 대보사갱 100여 명과 성주지역 수평갱 16개소에 500여 명, 천라지역 수평갱 월산·삼품 등에 100여 명이고, 영보탄광(사장 김두성, 노조위원장 김영근) 천라지역 사갱으로 의평대본갱·상중대풍갱,

성주지역 사갱으로 대원 등 근로자 1200여 명이고, 성주 명성산업(사장 조성옥) 수평갱에 30여 명, 덕수탄광(사장 이낙규, 노조위원장 최재영)과 개화 1갱·전차갱 등에 근로자 300여 명이 있었다.

근로자 노임이 2~3개월 체불되는 것은 광산업계의 관례로 알고 작업해 온 근로자들이었지만, 광산근로자 노조가 결성되면서 체불노임을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집단 시위를 시작한 것이었다. 신성산업 근로자들은 2일 간 작업을 거부하다가 시위 3일째에는 신성산업 본사로 난입하여 회사사무실을 점거 기물을 파손하기에 이르렀다. 시위 4일째에는 성주지역 근로자 1,000여 명이 합세하여 농협 보령군지부 2층에 있는 노동부 보령출장소에 난입하여 근로감독관이나 출장소장이 체불노임 해결에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고 기물을 파손하고 출장소장(임회문 수원거주)을 폭행하기도 하고, 대천시가지 도로를 점거 시위를 하였다. 그리고 청라지역 영보탄광 근로자 1,000여 명이 합세하여 시위를 벌여 대천 시가지는 혼란하게 되었고 시위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분위기가 과열되고 통제도 되지 않고 제2의 강원도 사북 사태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

시위 5일째는 시위근로자들이 대천역에 난입하여 정차해 있는 서울발 무궁화호 열차를 습격하여 열차가 파손되고, 대천역 플랫폼을 점거하여 농성하여 장항선 상·하행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다.

시가지가 혼란해지고 관공서가 습격당하는 등 근로자 시위가 극렬해져서 보령경찰서에서는 전경기동대 2개 중대 200여 명을 동원했으나 열차 파손 등 시가지 질서 통제가 어려워 기동대 10개 중대 1,000여 명을 추가 동원하여 총 기동대원 1,200여 명이 동원되었다. 경찰은 야간에는 경찰서 회의실, 대천해수욕장 소재 충청남도해양수련관 등에서 휴식을 취하고, 주간에는 경찰서, 군청, 노동부 출장소, 대천역 등 시위대가 난입 가능한 기관에 배치되어 시가지 질서 계도에 임하였다.

시위 6일째에는 열차운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대천역 플랫폼에서 농성하는 시위근로자들을 해산시키려고 기동대를 투입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진압하는데, 일부 근로자들이 철도에 깔아 놓은 자갈을 던지면서 저항하므로 부상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강제해산을 중단하고 시위근로자 대표들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기동대를 역광장으로 철수시켰다. 이때 시위 근로자들을 강제 해산시키려고 경찰 기동대가 최루탄을 사용하였다. 이에 시위대가 광산에서 굴진과 채탄시 사용하는 다이ना마이트를 대천역 농성장으로 가져올 것이라는 첩보가 있어 오후 4시부터 보령경찰서 경찰관과 기동대 합동으로 청라지역과 성주지역·남포지역에서 대천시내로 들어오는 도로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통행 차량을 검문·검색하는 비상근무를 실시하였다.

시위 7일째 전날 밤 광산지역에서 폭발물이 운반될 것을 대비 임시검문소 운영과 각 광산의 화약류 취급 기사들의 노력으로 폭발물은 운반되지 않았다. 열차 정상 운영을 위해 시위근로자 대표들과 보령군수(28대 조국환), 보령경찰서장(39대 장석조), 대천역장 등이 대천역에서 회의를 했다. 한편 근로자들은 전날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하면서 해산시키려는 것을 보고 강경 진압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또한 그동안 대천 시가지를 무질서하게 만든 데 대한 주민 비난과 법적 책임감으로 한발 물러선 상태에서 열차 파손에 대한 보상 책임과 열차 운행 방해 등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대천역을 점거했던 광산근로자들은 해산되고 열차운행이 정상화되었다.

신성산업 광산 근로자들이 노임체불 문제로 일으킨 1주일 간의 과격시위는 결국 노동부·대천역 등 관공서와 회사에 대한 폭력, 시가지의 무질서화 등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비난 여론을 근로자들이 떠안게 되는 양상이 되었다. 근로자들이 추구하였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진압부대의 증강, 행정당국의 강한 설득으로 시위대는 해산되었다. 근로자 대표들은 군중심리에 편승한 자신들이 과격 행동을 스스로 인정하고 시위 시작 1주일 만에 해산하고, 그후 체불임금 문제로 각 회사 작업장 단위로 소극적인 산발시위를 벌였다.

(3) 웅천 공군 사격 훈련장 유치에 따른 주민 집단 시위

공군 사격장 위치 : 웅천읍 소항리 오수 마을
 사격장 규모 : 직접 훈련사격장 150만평(주변 배후지 210만평)
 사격장 공사 기간 : 1985. 1 - 1986. 10

① 공군사격장이 설치된 경위

본 사격장은 전남 영광군에 있던 것을 이전한 바 당초에는 사격장이 아니고 공군부대를 설치한다고 주민들을 속인 사업이었다. 이곳에 공군부대가 들어서면 소항리에서 웅천 시내까지 2차선 도로가 신설되고 웅천면의 인구가 3만 명으로 늘어나 읍으로 승격되는 등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보령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선전하면서 토지매입 등에서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토지매입에서부터 국방부가 아닌 한국전력에서 주관하였고 공사도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가 아닌 성지건설이라는 그때까지만 해도 보령지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에서 맡았으며, 막상 공사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서도 공군 군인이나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단순한 사격 훈련장이었던 것이다. 전남 영광에 있던

사격장을 이곳으로 옮기고 영광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었음이 뒤늦게 밝혀지게 되었다.

공군부대가 아닌 단순한 사격훈련장이었기 때문에 주둔하는 병력도 중위 1명과 사병 몇 명 정도에 불과하여 지역 경제에는 하등의 보탬도 없고, 당초에 퍼뜨렸던 웅천 시내까지의 2차선 도로 신설도 헛소문으로 끝났다. 사격장의 설치로 100여 세대가 당진군 석문간척지 등 타지역으로 이주하였고, 황교초등학교가 폐교되었으며 대대로 경작해 오던 기름진 옥토 대부분이 사격장에 편입되고 소황리·황교리·독산리 등의 어민들이 어장을 잃는 등 오히려 인구가 줄고 지역 발전에 지장을 주는 시설이 되어 주민들을 실망시켰다.

② 사격장 주변의 소음피해

사격 훈련을 하는 날에는 전투기의 상승·하강 시 나는 소음과, 폭격 소음 등이 심하여 웅천읍의 소황리·황교리·독산리·죽청리·관당리·노천리·대창리, 주산면의 증산리·유곡리·신구리·야룡리·주야리·창암리·황율리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며, 전화통화를 할 수 없고,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으며, 가축들은 성장이나 번식에 지장을 받으며(닭의 산란을 저하, 송아지 유산 등),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들이었다. 이밖에도 비행기에서 실탄이 떨어져 피해가 나기도 했으며, 1989년에는 전투기가 추락하여 웅천읍 노천리의 가옥 3채가 소실되고, 할머니 한 분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③ 주민집단시위

소음 피해에 시달려온 사격장 인근의 주민들은 마침내 집단시위를 하기로 하고 1989년 3월 19일 소황·황교·독산·죽청 주민 400여 명이 소음 공해 대책과 사격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오전 10시경부터 사격 훈련장 본부 앞에서 농성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사격 훈련장 관리 책임자가 공군 중위로 나이가 어려 주민들과 대화가 되지 않아 행정 기관에서 군당국에 책임자 격상을 요구하여 한동안 공군 대위가 파견되기도 하였다.

시위는 오후 7시경까지 계속되었는데 행정기관에서 상부와 군부대에 연락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설득으로 일단 해산되었다. 사격 훈련이 계속되는 한 주민 불편 완전 해소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사격장 주변의 토지와 전투기가 활공하는 지역의 토지 등을 매입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주 등의 대책을 세워주겠다 하여 주민 집단 시위가 멎은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도 현지 주민들은 생활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때 소황리 오수 지역을 포함한 황교리 주민 100여 세대가 당진군 석문면 간척지로 이주하였고, 또한 소황리의 북부마을인 회여물로 일부가 이주하고, 황교리 통달산 아래 부사 방조제가 시작되는 곳으로 이주하여 장안 마을을 조성하여 30여 세대가 새로운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소황리에 공군 사격 훈련장이 오지 않았으면 마을 인구가 많은 황교초등학교로 관당초등학교가 통합되어야 하는데 사격 훈련 소음으로 학교 수업이 불가능하여 1993년 3월 1일 황교초등학교 6학급 30명이 관당초등학교로 통합되었다.

사격훈련장 본부는 처음에는 막사로 되었으나 1994년 3월 황교초등학교로 이전하여 현재는 책임장교 공군 중위 1명이 경계 사병들을 지휘하고 있다.

〈자료제공 :보령교육청, 최종실(당시 웅천읍 소황리장), 김기순, 윤태명, 김신기〉

(4) 보령댐 건설에 따른 주민집단 시위

① 보령댐 건설 개요

미산면 평라리를 중심으로 9개리 5,805,000㎡가 수몰된 보령댐은 태안화력, 당진화력, 대산지역 현대정유사를 포함 5개 회사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보령시를 비롯 서천, 홍성, 예산, 서산, 태안, 당진 등 7개 시군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수자원공사 관할 다목적댐이다.

1989년 10월부터 건설부에서 보령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주관 소규모 댐건설 계획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1990년 9월 실시 설계와 함께 보령댐건설사업소를 대천시 대천동에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1992년 6월부터 93년 6월까지 보령댐 계통 광역 상수도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작성되었으며 92년 6월 4일부터 보령다목적댐 침수 이설도로 공사가 (주)쌍용건설과 (주)서오개발에서 착공하였다. 그런데 공사 중에 충청남도에서 댐관리 전문성과 공사비용 등의 문제로 1993년 12월 28일 충청남도와 수자원공사 간에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 이관 협약이 체결되어 수자원공사에서 1994년 6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여 1998년 11월 30일 준공하였다.

② 보령댐 건설로 수몰된 지역과 가구

미산면 평라1리 평장마을을 중심으로 130여 세대, 평라2리 미산중학교와 자라실 마을 중심으로 80여 세대, 풍계1리 풍년동 중심으로 100여 세대, 풍계 2리 완성마을 중심으로 50여 세대, 용수1리 용바위와 수현마을 중심으로 90여 세대, 용수 2리 미산초등학교와

용암부락 중심으로 50여 세대, 용수3리 중대암 입구인 거문마을 중심으로 80여 세대, 늑전리 좁은목 마을이 있던 70여 세대, 봉성리 새재가 있는 마을 중심으로 95세대 등 9개리(5,805,637㎡)가 수몰되어 750세대 900여 명의 이주 세대가 발생하였다.

③ 댐건설에 따른 주민 집단시위

1989년 10월 건설부의 보령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이어 1990년 9월 충청남도의 보령다목적댐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 설계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수몰지역에 대한 토지 수용 및 보상에 대한 근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주민들은 불안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각 마을회관에서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수몰 경험이 전무한 주민들은 토지 보상이나 이주 대책에 중구난방식으로 각자 주장만 내세워 의견이 집중되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위원장에 전 미산면장 이상각(작고), 총무에 윤항로(당시 평라리 거주)로 보상대책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목소리를 내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곧 대천 시내에 있는 보령댐사업소와 충청남도를 수차례 방문하여 이주민들의 이주 예정지에 대한 주거지 조성, 농경지 확보 등의 대책으로 남포간척지와 부사간척지의 분양을 요구하는 등 이주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명확한 기본대책이 합의되지 않았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수몰지역에 대한 감정평가단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1991년 9월 10일 오전에 미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수몰대상지역 주민 300여 명이 모여 감정평가에 대한 주민대책회의를 열고 토지, 건물, 가축, 과수, 농작물, 분묘이장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논의하였지만 전체적인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일단 감정자체를 거부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반대만 한다고 주민들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보류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이에 위원회는 이제까지 각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 회의실 등 주로 옥내에서 대책회의를 수차례 가졌으나 관계당국이 수몰민들의 심정을 알아주지 않으므로 감정위원들이 오기 전에 옥외 집회를 열어 댐건설 반대 등 주민들의 일치단결한 의사를 보여주고, 감정가가 높게 책정되도록 하자고 결의하였다. 또한 현재 보상대책추진위원회의 회장단이 너무 미온적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 하여 2차 이주보상추진위원을 새롭게 선출하였는데 위원장에 백이호, 총무에 이환우가 선출되어 보령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옥외 집회를 열면 주민들이 일시에 많이 몰려 군중심리에 의하여 도로를 점거 농성하거나 대천 시내에 있는 충청남도보령댐사업소에 난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미산면 평라리 회관에서 미산면 도화담 경계 교량까지 약 6km를

행진하는 조건으로 경찰은 집회신고를 접수하였다. 1991년 9월 17일 주민 400여 명이 집회를 갖고 시위행진 대열에 질서 계도인을 지정하여 이주 및 보상대책을 강구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도로 1차선으로 6km를 걸어가면서 간간히 이주·보상 대책 촉구 구호도 외치면서 도화담교까지 무사히 도착하여 보상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한 음료수 등을 먹고 해산하였다. 주민들은 시위가 너무 싱겁게 끝나고 해산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시위 후 수물지역 대상물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경상도 진주 남강댐 건설, 전라도 용담댐 건설과 비교하여 너무 낮게 책정되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특히 진주 남강댐 사업소장이 바로 미산 출신 최○○씨여서 보상대책추진위원들과 수시 연락이 되어 보상가 차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게 되었다.

보상대책추진위원회는 1차 시위 이후 뚜렷하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2차 옥외집회를 열기로 하였다. 2차 옥외 집회를 갖기 위해 1차 때와 같이 보령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9월 25일 평라리 회관 공터에서 아침 10시경 주민 500여 명이 집회 행사를 하는 중에 대천 시내 거주 김모씨가 보령농민회 단체원 등 주민 이외의 사람 일부를 동참시켜 사물놀이와 식전행사 등을 실시하면서 1차 집회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상황이었다.

집회를 마치고 도화담교까지 도보행진을 시작하여 용수리 용못 지점에 도착하자 위원회 측은 보령댐사업소장은 즉각 나와서 이주보상대책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라고 주장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당시 보령군수(김학현)가 현지에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 계도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보령댐사업소장(공병선)은 미산 지서에 와 있었으나 흥분한 주민들이 사업소장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공포심에 현지에 나오지 못하였다.

소장 대신 사업과장(최찬규)이 주민들을 설득시키려 해도 주민들은 사업소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약 4시간 동안 농성을 계속하였다. 시위대는 다시 도화담교까지 도보행진을 진행하였는데 오후 6시경 도화담교에 도착하여 이주보상촉구 구호를 외치고 그 자리에서 다시 농성을 하기 시작하였다.

애초에 위원회는 도화담교에서 해산하기로 하였으나 행진 도중 열기가 올라 있었고 감정이 격화되어 충청남도 도청까지 걸어가자는 의견도 제기되어 농성을 계속하게 되었다. 당시 집회 군중이 이탈할 경우를 대비해 충남 경찰청 기동대가 미산지서에 대기하고 있었다.

진행도로에 정북 경찰관이 저지하면 주민들이 흥분하여 불상사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사복경찰관 10여 명이 교량 위에서 주민들을 해산하도록 설득하고 있었는데 당시 충남도지사(이종국)가 보령지역에 출장왔다가 미산지서에 들러 기동대를 위문하기도 하였다.

시위 주민들이 충남도청으로 가야 한다고 농성하고 이를 저지 설득하는 과정에서 용수3리 장모씨와 김모씨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행인 것은 시위 주민들이 미산지역 주민들이어서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돌을 던지거나 흥기를 휘두르는 과격한 행동이 없다는 점이었다. 추진위원회와 경찰의 설득으로 밤 11시경 주민들은 자진 해산하였다.

④ 수몰민 이주 상황

수몰지역 주민들은 댐 상류지역에 새로운 가옥을 짓고 이주한 세대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음 표와 같이 이주하여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였다.

번호	이 주 지 역	세 대 수
1	주교면 배다리 대성마을	10
2	주교면 관창리	3
3	남포면 창동리	6
4	남포면 제석리	30
5	남포면 삼현리	6
6	요암동	10
7	남곡동	6
계		71

최근 보령댐 상류에는 ‘애향의 집’을 신축하여 이곳을 찾는 수몰민들에게 향수와 타향살이에 대한 애환을 달래 주고 있기도 하다.

자료 제공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 애향의 집

윤항노(1차 보상대책추진위원회 총무), 백이호(2차 보상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